

크로싱아트 갤러리, '한인작가 3인' 등 전시회

뉴욕일보 양호선

RealClick

▶ 10/16 SBS주최 웨딩박람회

▶ 내 병은 내가 고친다..

▶ 내 병은 내가 고친다!

▶ 신개념 다단계사업 해피우스



▲ 2일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작가 및 갤러리 관계자들.

© 뉴욕

일보

퀸즈크로싱에 있는 크로싱아트 갤러리에서는 '한인작가 3인' 등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2일부터 11일까지 'Tales Gone In Flocks and Herbs'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대나무와 수제 종이로 만든 설치작가 장진원, 인간 활동의 비교와 자연현상에 배료됐다는 장흥선, 물과 불을 이용해 나무 판넬 위에 그림을 그림을 선보이고 있는 이호철 등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